

구름·바람·식물이 내보이는 변화무쌍한 날씨의 징후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날씨의 세계

트리스탄 굴리 지음, 서정아 옮김

남부지역, 특히 광주의 기온이 심상치 않다. 급기야는 내년 3월부터는 제한급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최대 상수원인 주암댐의 저수율은 30% 붕괴 직전이다. 광주의 3개 자치구와 나주·목포·순천·영광 등 10개 시군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암댐의 저수율이 급락하면서 사실상 비상이 걸린 상태다.

모두 비가 오지 않은 탓이다. 평소에는 잘 인식하지 못 하지만 비는 결정적인 시기에 그 존재감을 드러낸다. 비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고, 물이 없이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일수록 활엽수의 잎끝이 더 뾰족하다. 끝이 유난히 뾰족한 잎사귀들은 주맥과 잎끝을 거쳐 빗물을 더 효율적으로 흘려보낸다. 열대 우림지역에 가면 이렇듯 뾰족한 잎끝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흙이나 모래, 실트, 눈발처럼 몹시 부드러운 지면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은 바닥에 익숙한 마마자국을 남긴다. 그



자극들은 비의 성격, 장대비인지 보슬비인지 혹은 짧게 내리는 비인지 오래 내리는 비인지를 알려준다."

우리 주변의 지역적인 것들에 주목해 날씨의 징후를 읽어낸 책이 발견돼 눈길을 끈다. 탐험가이자 작가, 자연항법 전문가인 트리스탄 굴리가 펴낸 '날씨의 세계'는 일상에서 날씨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을 조망한다. 저자는 5개 대륙 탐험을 이끌었고 배와 비행기로 홀로 대서양을 건넌 유일한 생존자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구름이 비를 만든다고 생각한다. 한데 비가 구름을 만든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다. 떨어지는 빗방울이 구름의 아래쪽 공기를 차갑게 해 응결을 시키고, 본래 있던 구름의 아래쪽에는 빼죽빼죽한 구름이 만들어진다.

저자는 구름과 바람, 언덕과 거리, 식물과 동물, 이슬방울이 내보이는 단서를 따라가다 보면 미기후(microclimate)라는 낯설고도 경이로운 영역에 도달한다고 본다. 주위의 경관에 예민한 이들이라면 기계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것이다.

한동안 일기예보는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었다. 신뢰도 때문이었다. 1955년 영국 중앙기상관측소의 수석 기상예보관은 "24시간보다 먼 미래에 관한 일기예보는 정확도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일기예보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기예보는 우리가 일상에서 또는 산책을 하면서 마주하는 날씨의 세세한 면

모까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날씨의 세계다.

오늘날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 산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언덕에 또는 골짜기와 바닷가에 살기도 한다. 섬에 거주하는 이들도 있다. 저자는 우리를 둘러싼 경관은 날씨를 빚어냈고 역으로 날씨를 빚어내기도 한다고 본다. 다음의 예가 그렇다.

"큰 섬의 경우 섬 양쪽의 날씨가 다르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섬들은 대부분 양쪽의 색깔이 다르다. 한쪽은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쏟아지겠지만, 반대쪽은 거의 내리지 않는 탓이다."

좀 더 큰 땅덩이를 보면 확연히 날씨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스위스 쥐라산맥에서는 800미터 높이의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판이한 기후가 펼쳐진다. 두 생태계가 가까운 거리에 공존하는 섬인 것이다.

구름을 세 부류로 구분하는 것도 흥미롭다. 털구름, 층구름, 짙은 구름이 그것. 털구름은 가장 높이 뜨는 구름으로 날씨의 변화를 가장 일찍잡지 경고하는 구름이다. 평평하게 펼쳐진 층구름은 대기가 안정적이라는 방증이다. 짙은 구름은 밑면이 판박이고 위로 몽실몽실한 윤곽을 드러내는 큰 구름으로 공기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형도 중요하다. 언덕처럼 지세가 불룩한 장소에선 차가운 공기가 골짜기 쪽으로 흘러간다. 유사한 지형이라도 숲이 우거진 곳에선 강우량이 증가한다.

저자는 "소소하고 가까운 대상을 관찰해 극히 소수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날씨의 징후들을 음미할 것"이라며 이번 책의 의미를 부여한다. <휴머니스트·3만1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영국 남부지역 브라이튼 하늘에 떠 있는 털구름의 일종인 '말꼬리구름' (위), 제트기류로프와 희미한 햇무리 모습. <휴머니스트 제공>

우리의 현대

장희원 지음

201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2020년 제11회 젊은작가상을 수상한 장희원의 첫 번째 소설집 '우리의 현대'가 출간됐다.

"좋은 글에 대한 답은 매순간 변하지만, 그 글에 누군가가 마음을 두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부디 내 글에도 그런 자리가 조금이나마 있기를 바란다."

작가는 작가의 말에서 좋은 글에 대해 "누군가 마음을 두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이라고 말한다. 삭막하고 외로운 시대 하나의 작품이 그런 온기를 주고 마음을 다독여준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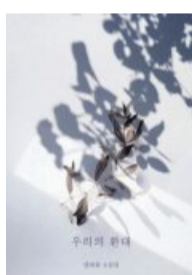
작가는 등단 이후 지금까지 일상에서 소외된 이들의 마음과 그림에도 파스한 시선을 견지하는 그런 작품을 자신만의 문체와 시각으로 표현해왔다. 마치 '타인을 환대하는 용기는 자신은 물론 세계를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이번 작품집에는 모두 9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때', '남겨진 사람들', '기원과 기도' 등은 모두 '부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과 존재를 꺼안으려는 작가의 선한 의지가 엿보인다.

사고로 자식을 잃고 사골로 내려간 아버지를 그린 '폭설이 내리기 시작할 때'와 죽은 애인과 갔었던 여행지를 혼자 가는 여인의 서사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남겨진 사람들'은 상실과 부재를 견디며 사는 이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그럼에도 작가는 잃어버린 무언가를 안고 사람들을 마냥 절망의 순간에 놓아두지 않는다. 부재를 확인하면서도 더 선명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담담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그린다. 문학의 힘은 그런 것이지 모른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권력은 현실을 어떻게 조작하는가

마리아 레사 지음, 김영선 옮김

지난 2021년 노벨평화상의 수상자 마리아 레사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자로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물러서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언론인을 대표하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필리핀 언론의 최전선이라 불리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래플러의 공동 설립자이자 CEO, 대표인 그녀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에서 자신의 팀을 이끌며 독재 정권의 몰락과 국가 독립, 이후의 정치적 격변과 불안을 기록했다. 래플러는 2015년 월드 서밋어워드 선정 '최고의 디지털 혁신 사례' 중 하나로 뽑힐 만큼 디지털 시대 탐사보도의 선구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마리아 레사의 회고록 '권력은 현실을 어떻게 조작하는가'는 '사실'을 지키기 위한 한 저널리스트의 투쟁의 기록이다. 유네스코 세계언론자유상을 수상한 저자는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저자는 이번 책에서 소셜미디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고 문제적인지 보여주고 있다. 특히 조국 필리핀의 현실이 어쩌면 많은 이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로운 기술과 낡은 권력이 결합하고 서로를 이용할 때의 위험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다. 또한 많은 이들은 사실보다는 소셜미디어의 '친구의 친구들' 말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정보의 문지기인 언론은 영향력을 상실했고 그와 더불어 우리가 공유하던 현실도 무너졌다.

책은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기술 기업이 언론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대를 경고한다. 저자의 분노와 미래에 대한 예견은 단순한 주의, 주장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상당 부분 현실감 있게 다가온다. <북하우스·1만8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성종, 군주의 자격을 묻다

방상근 지음

조선왕조 9번째 임금 성종(1457-1494)의 시대는 흔히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평화로운 때'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종의 치세는 쉽게 이뤄진 게 아니었다. 후계 순위 3순위에서 윤종계 왕위에 오른 불안한 처지였으며 격변과 혼란으로 무너진 민심과 풍속을 바로 잡아야 했다.

아름다운 백조가 호수 아래에서 분주하게 발을 움직이듯, 책은 성종의 치세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었는지 얘기한다.

방상근 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펴낸 '성종, 군주의 자격을 묻다'는 우리가 알고 있던 성종과는 다른 모습을 담고 있다. 책은 '군주 평전 시리즈'의 세번째 순서다.

그간 사학·철학·정치계는 성종시대를 왕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급진파 신진 사대부들이 권력과 부를 축적해 권신이 되어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15세기를 주도한 관학파의 정치이념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시대로 바라봐왔다. 이에 저자는 이들의 연구가 짊어지지 못한 성종의 리더십을 얘기한다.

성종은 부패한 정치를 개혁함과 동시에 대신을 존중하고 인사권, 형벌권을 신중히 사용해 정치적 안정과 통일을 이뤄냈다.

반면 비슷한 시대 연산군과 중종은 그렇지 못했다. 이는 곧 '사회'라는 비극으로 초래되기도 했다.

세종시대가 국가 운영의 틀이 제도화해가는 시기였다면 성종 시대는 제도화를 넘어서 교화의 정치로 이행했던 시기다. 책은 성종시대와 15세기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간과했던 측면을 부각시킨다. 성종시대를 맞이해 권력투쟁과 제도화 문제 일단락으로 떠오른 '교화의 정치'에 주목한 것. <푸른역사·2만3000원>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